

삼성전자, LED조명 해외시장 개척

프랑크푸르트 조명·건축박람회 참가 ... 글로벌 빅뱅에 적극적 대비

삼성전자는 4월15일부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고 있는 <세계 조명·건축 박람회>에 참가해 고효율 조명용 패키지, 엔진 등 100종을 선보였다고 4월17일 발표했다.

2009년 설립된 후 2012년 4월2일 삼성전자에 흡수합병된 삼성LED나 삼성전자 LED사업부가 국제전시회에 참가한 것은 처음이다.

삼성LED는 창업 시작 1년만에 세계 LED(Light Emitting Diode) 시장점유율 2위를 차지했으나 국제행사에 는 참가하지 않았다.



삼성전자는 4월16일 전시 부스에서 내외신 매체와 글로벌 고객기업을 포함 1000여명의 관람객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와 신제품 설명회를 열었다.

또 고효율·고출력 LED 패키지, 실내조명용 엔진 등 신제품을 대거 선보이는 한편 급성장하는 LED조명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장기 전략을 제시했다.

삼성전자 LED사업부 이도준 전무는 “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LED조명 시장은 2015년을 기점으로 디스플레이용 백라이트 등을 제치고

LED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”이라며 “삼성전자는 LED조명 시장 빅뱅(Big Bang)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조명용 LED 시장은 2011년 18억달러로 전체 LED 시장의 15%를 차지했지만 앞으로 연평균 14% 성장함으로써 2015년에는 30억달러로 26%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4/17>